



## 여성과 흡연

최 차 혜 · 산부인과 원장, 전문의

**질** 친한 후배의사 한명이 젊음의 거리라 불리우는 압구정동에 새로 개업을 해 인사차 들렀다가 참으로 황망한 광경을 보았다. 햇살 따사로운 대낮의 길거리에서 버젓이 담배를 물고 있는 젊은 여성을 본 것이다.

달나라로 신혼여행 갈 시대에 웬 구닥다리 같은 소리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필자에게 필경 적잖은 충격이었다.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은은한 조명 아래 흰 연기를 뿜고 있는 빨간입술, 혹은 익숙한 솜씨로 소주병과 담배를 번갈아 섭렵하는 TV 속의 여주인공은 어느새 우리 생활에 낯설지 않다고 해도, 길거리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는 여성은 흔하게 보여지는 광경은 아니라 확신된다.

일본문화 개방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기호품 선호에 남녀를 따질 일이 어디있겠냐는 따끔한

지적도 지당한 말씀이나,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30여년간 경험해 본 필자 역시 여성의 흡연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여성은 남성의 흡연에서처럼 폐암의 우려는 물론 불임, 유산, 미숙아, 기형아 출산 등 적잖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의 폐암 사망률은 지난 20년간 거의 변함이 없었으나 같은 기간동안 담배를 피운 여성의 폐암 사망률은 급격히 증가하여 흡연여성의 5대 사망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피임을 중지한 후 5년 이내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의 임신 실패율은 5%미만이었지만, 흡연여성은 11%가 계속 불임이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흡연여성은 비흡연여성에 비해 거

의 2배 가까운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이 있으며 월경 이상 및 자궁압에 걸릴 확률이 높고 폐경도 비흡연여성에 비해 2년 정도 빨리 온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면 태아도 함께 피우는 것과 똑 같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산모의 흡연으로 인해 일산화탄소와 니코틴이 태아의 혈류로 전달되어 산소의 공급이 줄고 맥박수를 증가시켜 정상적인 발육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해, 태어나는 아기도 비흡연 아기보다 평균 300g정도 체중이 가벼운 것으로 알려진 것은 물론 조기유산이나 사산, 미숙아나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영국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흡연산모의 아기는 비흡연산모에 비해 28%나 태아사망의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적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남성 흡연율의 30~50%에 육박하는 20~40%가 여성흡연율로 나타났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젊은 여성들을 중

심으로 그 숫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많은 나라에서 여성흡연을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나라의 여성흡연에 따른 위험을 계몽하는 일도 더 이상 뒤로 미뤄져선 안될 것이다.

담배 광고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린 미국의 20개 잡지 중 8개가 여성잡지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당국의 50여가지 여성잡지를 대상으로 담배광고 정책을 연구한 조사결과 조사 대상 중 64%의 여성잡지가 담배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나라와 나라가 개방되고, 문화와 문화가 개방되는 현실 속에서 앞서가는 세대라는 명목하에 묵인되어 온 여성흡연.

담배를 피우고 안피우고의 자유는 개개인에게 있으나, 자기자신은 물론 앞으로 가질, 혹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백해무익한 담배를 계속 용납하는 한, 씩씩하고 건강한 미래를 희망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다. 72

## 해외의학정보

### C형 간염, 세계보건 위협한다

C형 간염이 세계보건을 위협하는 새로운 질병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세인트 루이스대학 의과대학의 애드리언 비스첼리 박사는 영국의 의학전문지 랜싯 최신호에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C형 간염 환자가 선진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아프리카와 동유럽은 이환율이 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비스첼리 박사는 특히

이집트에서는 C형 간염 환자들이 전체 인구의 15%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크게 눈에 띄지 않던 질병인 C형 간염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스첼리 박사는 앞으로 20년 후면 C형 간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의 3배 이상 늘어나 에이즈에 의한 사망자수를 앞지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스첼리 박사는 히 선진국에서는 C형 간염 테스트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주로 수혈에 의해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옮겨졌다고 밝

히고 현재 가장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주사바늘을 함께 쓰는 마약상습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에서는 마약상습자 1백만명 중 절반이 C형 간염 환자들이며 특히 C형 간염에 감염된 어머니들의 5%가 아기에게까지 이를 전염시키고 있다고 비스첼리 박사는 밝혔다.

비스첼리 박사는 C형 간염에 감염된 사람 중 85%가 만성 환자가 되고 이중 20%는 결국 강경변으로 악화되고 이중 1~4%는 간암으로 진전된다고 말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인이 간이식 수술을 받는 가장 큰 이유로 C형 간염이라고 밝혔다.

비스첼리 박사는 현재 C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으며 치료효과도 제한적이어서 항 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의 6개월 투여로 증세가 호전되는 환자는 15~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C형 간염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C형 간염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특수 항 바이러스제를 개발하는 길 뿐이라고 비스첼리 박사는 말했다. 72